

박세희

경력

여, 1992 (33세)



이메일 tpgml062@naver.com | 휴대폰 010-4124-7289

주소 (17023) 경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전대로

경력

소프트랜더스 (주) 재직중

총 9년 9개월

학력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고등학교 졸업

희망연봉

3,800~4,000만원

포트폴리오

-

간략 소개

웹 퍼블리셔로 커리어를 시작해 수십 개의 웹사이트를 제작하며 시각적 완성도와 HTML/CSS 구조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았습니다. 이후 React 기반 프론트엔드 개발로 영역을 확장하며, 단순 UI 구현을 넘어 API 연동, 상태 관리,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설계 등 구조적인 프론트엔드 개발 경험을 축적해왔습니다.

또한 서비스 기획 단계부터 화면 설계, UI 구현, 기능 개발, 테스트, 그리고 실제 서비스 출시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사용자 흐름과 비즈니스 요구를 고려한 프론트엔드 구현 역량을 강화해왔습니다. 디자인 감각과 사용자 경험 중심의 사고를 바탕으로, 완성도 높은 화면 구현과 실질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를 지향합니다.



<https://s921132820.github.io/>

나의 스킬

JavaScript

TypeScript

ReactJS

백엔드/서버개발

API

Java

MySQL

Node.js

PHP

WordPress

MongoDB

Redis

DevOps

SI개발

jQuery

RestAPI

경력 총 9년 9개월

2025.03 ~ 재직중



소프트랜더스 (주)

웹개발

2021.01 ~ 2025.03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웹개발

4년 3개월

2019.12 ~ 2021.01



하나님의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 서울공항교회

사원/팀원 · 퍼블리셔

1년 2개월

2014.02 ~ 2018.05

 (주)세파란 사원/팀원 · 퍼블리셔

4년 4개월

2010.10 ~ 2011.03

 옵티시스(주)

6개월

학력 [고등학교 졸업](#)

2008.03 ~ 2011.02

광주전자공업고등학교 전문(실업)계 디자인과

졸업

자기소개서

날마다 성장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용자 문제를 중심으로 서비스 전체 흐름을 고민하며 개발해온 프론트엔드 개발자입니다. 단순한 기능 구현을 넘어, 복잡한 문제를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인터페이스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가장 큰 보람을 느낍니다.

웹디자인으로 커리어를 시작해 퍼블리싱을 거쳐 개발자로 전향한 경험은 저에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개발자라는 직무에 대해 명확히 알지 못했지만, 화면이 실제로 동작하고 사용자의 행동에 따라 반응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점점 구조와 로직에 대한 궁금증이 생겼고, 그 호기심이 개발 영역으로의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기술 자체보다 사용자와 서비스 맥락을 이해하는 개발자로 성장해왔습니다.

특히 전 세계 약 300만 성도가 이용하는 하나님의교회 공식 홈페이지 개발·운영을 담당하며, 다양한 국가·연령·디바이스 환경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했습니다. 실제 사용자 피드백과 운영 이슈를 바탕으로 화면 구조, 콘텐츠 접근성, 사용자 동선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기술적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의미 있는 경험”을 만드는 데 집중해왔습니다. 이후 리로케이션 플랫폼 개발에 참여해 React와 TypeScript 기반으로 실제 서비스를 Cursor 등 AI 도구를 활용해 개발하고 런칭까지 경험하며, 기획부터 개발, 배포까지 제품 전체 흐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용자 경험을 최우선으로 두되, 서비스의 안정성과 유지보수성을 함께 고려하는 개발 방식을 지향합니다. React 생태계를 중심으로 타입 안전한 코드 구조와 재사용 가능한 컴포넌트 설계를 고민하고 있으며, Jira를 활용한 이슈·일정 관리를 통해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고 팀과의 협업 효율을 높여왔습니다. 또한 AI를 단순한 보조 도구가 아닌 개발 생산성과 품질을 동시에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하며, 반복 작업 단축, 구조 검토, 문제 분석 등 실무 전반에 적극 적용해왔습니다.

저의 강점은 다양한 역할을 거쳐온 경험을 바탕으로 IT 비전문가와도 원활하게 소통하고, 피드백을 결과 개선으로 연결할 수 있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때는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다 효율의 한계를 느낀 경험도 있었지만, 이를 계기로 팀과의 공유, 질문, 협업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이는 개발자로서 하나의 임계점을 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개인의 완성도보다 팀과 제품의 완성도를 우선으로 생각하며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단기간의 성과보다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방향을 선택해온 개발자입니다. 국비지원 풀스택 과정을 통해 기초를 다지고, 현재는 학점은행제 컴퓨터공학과 과정을 통해 이론적 기반을 보완하며 학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변화가 빠른 기술 환경 속에서도 유행을 좇기보다, 실제 사용자와 서비스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선별해 받아들이는 태도를 유지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왜 이 기능이 필요한가”를 함께 고민하고, 기술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개발자로 성장하고 싶습니다. 사용자와 팀 모두에게 신뢰받는 구성원으로서, 제품의 완성도를 함께 만들어가는 개발자가 되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